오륙도 칼럼

UN평화문화특구의 관광발전전략

이미순

부산의 관광산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속도가 빠르지 못했으며 미래의 성장 예측도 매우 밝지만은 않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것이 부산의 관광은 해양자원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관광객은 다양한 체험과 거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관광목적지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스며들어 직접 느끼고 교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부산은 해양자연자원만을 의지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UN평화문화특구가 있는 남구의 경우는 관광객 유치의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주변의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비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운대와 광안리는 부산의 대표 관광지이며, 부산의 대표축제인 부산세계불꽃축제와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모두 광안리와 해운대에서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을 남구로 유입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UN평화문화특구는 남구의 미래 관광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부산시민들은 남구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이기대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오륙도가 남구가 아닌 해운대구에 위치해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시민들도 많다. 이는 남구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했던 결과가 아닐까?

부산시는 그동안 해운대와 광안리에만 치중해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부산시는 앞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구 단위로 분류한 자원분포도와 관광목적지 소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UN평화문화특구는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이 57만㎡로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 등 역사성이 있고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이다. 특구관련 단위사업으로는 총 4개 사업으로 부산 남구 평화이미지 및 상징성 제고사업, 국제평화교류협력 사업,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사업, 유엔기념공원주변 경관조성 사업이다. 특구 내에는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 역사의 거리 등 다양한 주제의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역사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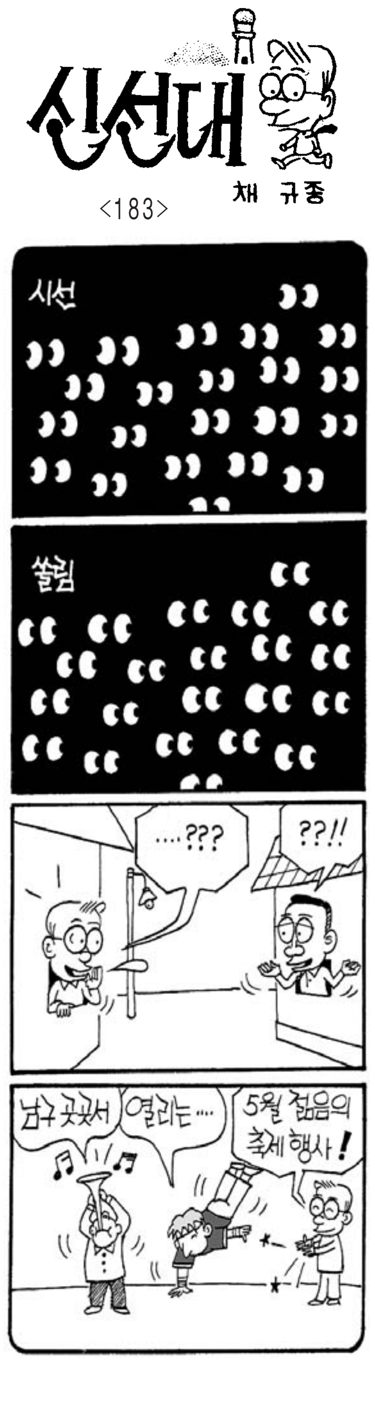
UN평화문화특구는 인공적인 개발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즈음 전 세계적인 관광형태는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및 체험관광과 "잘 먹고 잘살자"는 것이 인간의 기본욕구라는 것을 인식하여 새롭게 나타난 웰빙을 목적으로 하는 슬로우 관광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trend가 대중관광지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 관광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언급되었던 관광편의시설과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더 이상 매력요인으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시라고 해서 빠르고, 급하고, 편리하다는 이미지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도시 안에서 새로운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는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부산은 미래의 성공적인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속의 자연을, 빠름 속의 느림을, 분주함 속의 여유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심에 UN평화문화특구가 있다. 주민들이 외면하는 지역은 결코 관광지로 성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 조화되는 정주형 자족지역,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웰빙 지역, 그리고 남구와 부산시민들의 여가와 레저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구는 세계유일의 평화를 상징하는 특구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평화'라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상징탑'을 건립하고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지속적인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성대 교수



선용의 1000자 지혜 ⑧③

윗사람

'머리가 좋지 않으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이지만 단체나 직장도 잘되고 못되고는 윗사람의 사리판단은 말할 것도 없고 뛰어난 통솔력과 남을 아우르는 포용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평범한 진리이다. 윗사람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강요 한다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일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윗사람이 되려면 항상 새로운 감동거리를 마련하여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어떤 진한 감동을 주어 스스로 따르게 한다든지 앞에 닥친 어렵고 힘든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씩씩하게 대처하는 기상과 꿋꿋한 절개를 먼저 아랫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옛날 오(吳)나라와 월(越)나라는 서로 이웃에 있었지만 사이가 나빠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월나라 임금 구천(句踐)은 오나라를 치고 싶었지만 오랜 싸움에 지친 병사들은 싸울 생각이 없었다.

"병사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킬 방법이 없을까? 용기 있는 병사만 있다면…."

고민 끝에 구천은 수레를 타고 동성(東城) 밖으로 갔다. 그때였다 길 한복판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자기보다 수 천 배나 큰 수레가 가도 꿈쩍 않고 구천을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 구천은 얼른 수레에서 내려 개구리를 향해 큰절을 했다. 당황한 마부가 물었다.

"임금님, 어찌하여 하잘 것 없는 개구리에게 큰절을 하십니까?"

구천이 답했다.

"하잘 것 없다니? 저 개구리 좀 봐, 수레바퀴에 깔려 죽게 되었을 때도 도망치지 않고 노려보고 있잖아? 용기가 대단하지? 그러니 용기 있는 자에게 절을 안 할 수 있겠니!"

마부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이야기를 병사들에게 말했다.

"임금님은 용기 있는 개구리에게도 절을 하는데 용기 있는 병사들에게는 오죽하겠나?"

병사들 사이에 그 소문이 퍼지자 여기저기에서 병사들이 나타났다.

"이 몸을 임금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리하여 월나라는 오나라에 싸움을 걸어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처럼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도 윗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며, 앞날에 자신도 윗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자리를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자주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번역문학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노래방 배경화면 선정적

며칠 전 큰 아들의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노래연습장에 갔다. 손주들까지 데려갔는데 그들이 동요를 부르며 즐겁게 노는 모습에 흐뭇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좋아하는 가요와 동요를 부르며 쌓인 스트레스도 풀었다. 그런데 노래 가사 자막과 함께 나오는 배경화면이 가사와 너무 동떨어지고 눈에 거슬렸다.

너무 노출된 옷차림이 나오고 때로는 남녀가 끌어안는 장면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스러웠다.

온 가족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노래방은 그나마 가족간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 적당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잖아도 갈수록 장삿속과 영리속에 도덕성과 윤리성이 문제되는 시점에서 노래방의 화면까지 성인문화가 깊숙해 자칫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성인중심의 노래방 문화도 이제 여러 계층의 손님을 고려해 다변화 했으면 한다.

최남이(대연1동)

주차단속 카메라 설치를

평소 남구신문을 빠지지 않고 구독하고 있으며, 특히 독자의 소리란은 늘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점, 꼭 시정을 요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저희 동네 주변에 늘 불편을 주는 일이 있어 꼭 시정과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요청한다.

대남로타리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내려가다가, 대연비치 아파트 101동 앞 육교(한나라당 부산지부 맞은편)에서, 오른쪽으로(101동 담을 끼고) 부경대 후문과 남천중학교 가는 이면도로가 있다.

폭이 좁아 차량 2대가 겨우 교행하는 정도인데, 이곳은 늘 상습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의 불편과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가끔씩 주차단속차량이 와서 단속을 하곤 하지만, 임시방편이고 미봉책일 뿐이다. 그래서 도로입구에 주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24시간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 불법주차가 사라지고, 통행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도 사라질 것이다.

김명호(대연3동)

우량도서 비치하자

가끔 구청과 세무서, 주민센터, 우체국, 도서관 등 관공서나 병원, 약국, 은행 등 서비스업체에 들러 대기 중에 여러 잡지들이 비치된 곳을 찾게 되는데 다른 회사에서 무료로 배달되는 사보나 관련업계의 치적이나 홍보를 알리는 잡지, 주간지, 월간지 정도가 대부분이다.

그러잖아도 국민들의 독서열이 낮기로 유명한데 읽을거리를 제대로 비치해 자투리 시간만이라도 독서를 할 수 있는 서적들을 공급해 주었으면 한다.

교양서적이나 베스트셀러를 비치해 둔다면 틈틈이 책을 읽고 한꺼번에 다 읽지 못할 경우 다음번에 가서 읽으면 된다.

약간의 비용이 들겠지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예산에 책정해 고객들을 위해 쓸 수 있으리라 본다.

대부분이 고객을 대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만큼 이익금의 극히 일부라도 교양서적 정도의 도서비 지출은 별 무리가 없을 것이며 고객관리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효율적인 일이 아닌가 싶다.

이용자들도 잠깐 기다리는 동안만이라도 비치된 교양서적이나 베스트셀러 작품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정서함양과 순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도형(문현1동)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남구문화원 통기타 교실 개설

통기타 교실 열자고 건의해 주신 문현2동 이진영님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남구문화원(☎624-1333) '웰빙문화'에 통기타 교실이 개설돼 매주 화요일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3개월에 6만원입니다.

지난 겨울방학 중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급반을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통기타의 낭만적인 선율을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김희정>

도로보수 완료

대연초등학교 부근 도로보수를 신속하게 정비해 달라는 안현아씨의 건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대연초등학교 앞 대연우체국 횡단보도 주변 도로 파손 건의 지역은 지난 1일 정비완료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재차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도로에 관한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도시관리과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매일 도로 순찰과 정비를 병행하고 있지만 5명의 인력으로 구 전역을 관리하다 보니 때로는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황동식>

무 남부중고등학교 료
■ 모집 대상
① 학업의 기회를 놓친 성인 남녀
② 학교 부적응 남녀 중고생
■ 위치 : 문현지구대 옆
■ 연락처(자세한 입학 안내)
학교 : 051-622-1205
담당 : 017-543-4746

■ 살며 생각하며

하늘요정 꽃씨 심는 날

윤선자

용당 어린이집 하늘 반 (7세 최정민 외 35명) 어린이들이 신선대 부두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부경대 담벼락 밑 오솔길에 물뿌리개, 호미, 모종삽을 들고 마치 꽃 전령사 마냥 상기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마리 소식통인 새가 큰소리로 앞 다투어 말한다. 다른 새들은 조용해졌다. 아마도 용당 요정들의 재잘대는 인기척에 놀랐나 보다.

소식통 새가 말했다. 용당 요정들이 두손으로 선생님께 무엇인가를 받고 있어. 우리도 가보자. 요정들의 머리 위에는 눈이 동그란 새들이 귀를 쫑긋이 세우고 숨죽여 요정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고사리손으로 씨앗을 받아 호미로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흙으로 덮어준 다음 살짝 손으로 톡톡 두드리고 물뿌리개로 물을 준다. 신이 난 요정들은 앉고 서고 뛰고 난리가 났다.

선생님의 호각소리에 요정들이 옷을 털고 앞다투어 줄을 선 다. 아쉽지만 어린이집으로 돌아 가야할 시간이 다된 것이다.

오솔길은 약 200m 남짓하다. 다리가 불편해 멀리 산책을 가지 못하는 동네 어르신들께는 체육공원과 연결된 아주 좋은 작은 산책로다. 공기가 맑고 신선해 아침, 저녁 삼삼오오 모여 찾는 이가 많다. 웅성웅성, 시끌시끌, 요정들이 웃음을 남기며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

앞다투어 흙속의 씨앗들도 속삭인다. 종종 우리 보러와. 몇몇 씨앗들은 다짐을 한다. 잘 자라고 있을게라고.

앞만 보고 조심해서 오라는 선생님의 말을 뒤로한 채 한 요정이 뒤를 돌아보고 있다. 씨앗아! 잘 있어. 자기가 심은 씨앗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한다. 호루라기 소리가 또 희미하게 들린다. 개선장군 요정들의 소리도 멀어지고 있다.

오솔길에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개선행진곡(Grand March)이 들리는 듯하다. 흙이 부드러워요. 꽃씨가 길쭉하고 머리카락처럼 생겼어요. 빨리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메리골드를 심으며 노래하며 머물다간 개선장군 하늘 반 요정들. 꿈과 희망이 메아리가 되어 우렁차게 돌아오고 있다.

오늘 요정들이 누군가를 위해 씨앗을 뿌렸다. 내일은 예쁜 꽃을 기대하는 희망이 자랄 것이다.

본지 기자

■ 수필 마을

찔레꽃 사랑

박능숙

우리 아파트 옹벽에도 장미꽃이 지천으로 어우러졌다. 옹벽이 있는 길은 약간의 경사가 있는 오르막이라 평소에 인적이 한산했다. 장미꽃이 옹벽을 수놓자 마음과 발길이 그쪽으로 이어졌다.

싱그런 스무 살 얼굴 같은 장미꽃을 보며 걷다가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서고 말았다. 뜻밖에 찔레꽃 한아름이 즐비한 장미넝쿨과 어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장미꽃과 찔레꽃이 나란한 것을 보기 전에는 전혀 별개의 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꽃 빛깔만 다를 뿐, 잎사귀며 줄기, 뿌리며 꽃 모양이 한 핏줄처럼 닮았다. 장미가 찔레에서 접목한 것이라고 하니 핏줄 사랑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장미의 안태본이 찔레에 있는 셈이다.

찔레의 생명은 뿌리에 있다는 것을 진즉에 알고 있었다. 찔레를 화분에 옮겨 보려고 뿌리를 파 본 적이 있다. 끝없이 이어진 뿌리는 땅 위로 뻗은 잎과 줄기보다 더 튼실하게 흙이며 자갈을 거머쥐고 있었다. 찔레는 본능적으로 가시를 세워 거세게 내 손등을 찔렀다. 찔레와 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결국 내가 지고 말았다. 느티나무나 소나무 등, 온갖 분재가 전시된 분재 전시장에서도 나는 찔레 분재는 보지 못했다. 그것은 굳이 분에 담기지 않아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번식할 수 있다는 찔레만의 의지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찔레에 코를 갖다 대자 향기 대신 땀 냄새가 나는 듯했다. 무명 적삼을 흠뻑 적시며 밭일을 하시던 내 어머니의 땀내 같은 것이었다. 어머니는 너른 들판에 수건을 쓴 채 흰 점으로 떠 있곤 하였다.

찔레는 볕 바르고 땅이 좋은 평지보다 후미진 개울가나 너덜겅에 뿌리를 걸고 자란다. 좋은 자리는 다른 식물에게 양보하고 척박한 땅이나 차지하는 미덕을 지닌 것이 찔레다.

미루나무가 잎을 반짝거리던 길을 따라 초등학교 친구들과 달리기를 하면 신작로 길섶으로 보리밭이 함께 달리곤 했다. 그 길에는 보리피리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빈 도시락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품바 소리 같았다. 깜부기가 나부끼던 보리밭에 문둥이가 있다고 했다. 해서 보리밭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두려움의 영역이었다.

찔레꽃이 피면 보리가 익어간다. 누런 보리밭 위에는 종달새 지저귀는 소리가 하오의 햇빛과 들판을 가득 채웠다. 보리밭으로 더운 바람이 스칠 때마다 보리이삭끼리 몸을 부비는 소리에 내 어린 시절도 익어갔다.

정열의 꽃이 장미라면 찔레꽃은 고고한 달빛에 비로소 제 모습을 비춰보는 수줍은 꽃이다. 그림으로 치자면 담백한 동양화이며 수더분하지만 당차고 기개 있는 조선여인의 꽃이다. 굴곡 많은 삶을 이어온 백성이며 민족 수난의 역사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지조 높은 꽃이다. 나는 무궁화보다 오히려 찔레꽃이 나라꽃이었으면 한다.

지금은 보리밭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종달새 소리 또한 들은 지 오래다. 언제부터인지 독무덤이 있다던 그 언덕도 사라졌다. 하지만 내가 즐겨 부르는, 소위 애창곡은 아직도 살아 있다. 옛날이 그리운 '찔레꽃'이다. 나는 이따금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을 흥얼거린다.

세상에 질긴 것 중에 으뜸인 것이 모성애다.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키웠듯이 장미를 키운 것은 찔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찔레꽃을 보며 새삼 깨닫는다.

수필가·기자

■ 독자의 詩

오륙도 새벽길

강남중
용호2동·시인

이른 새벽 아침이다
계절이란 봄이
천지만물을 깨우는데
어찌! 난들!
코로 숨쉬고 있으면서
봄의 기운을 모른 척 하랴
제법 상큼한 밥상처럼
노란 개나리며
화들짝 피고 지는
야만스런 벚꽃이며
봄에 미쳐버린 진달래꽃
해풍이 지나가는
동백꽃 아련함이며
부산의 오륙도를
산책해 볼 일이다
내가 모양 있는
꽃은 아닐 지라도
꽃이 피기에
살아 있다는
생명을 공유 하면서
오륙도 새벽길을 걸어본다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李福熙 / 편집주간 河仁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품>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